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2, 117-136, April 2014
DOI : dx.org/10.5723/KJCS.2014.35.2.117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 후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박수연(Soo-Yeon Park)[1)]
도현심(Hyun-Sim Doh)[2)]
김민정(Min-Jung Kim)[3)]
송승민(Seung-Min Song)[4)]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 total of 348 mothers of fourth and fifth grad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tems related to their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eir own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First,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significantly

* 본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C00001).
* 본 논문은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4)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affected mothers' emotion regulation, but mothers' emotion regulation did not directly affect thei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econd,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had an effect 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which led to a high level of thei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Lastly,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rough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emphasiz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sitive parenting, as well as a crucial influence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Keywords :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mothers' emotion regulation), 아동의 정서조절능력(children's emotion regulation).

Ⅰ. 서 론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 아동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부모의 정서 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절한 범위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Eisenberg, Shepard, Fabes, Murphy, & Guthrie, 1998).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배운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Eisenberg, Fabes, Nyman, Bernzweig, & Pinuelas, 1994; Park & Kim, 2005).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유능성이 높으며(Lim, 2002), 또래관계에서 리더십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보이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Park & Kang, 2005).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며(Han, 2005),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09). 이처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바람직한 또래관계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선행 요인으로서 그 관련 변인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로 학령 후기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점(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2)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선행 요인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관련 변인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정서조절능력이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Grolnick, Ryan, & Deci, 1991; Park & Lee, 1990). 아동은 출생 후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정서조절 방법을 모방하게 된다(Kim & Song, 2008; Lim & Park, 2001; Morelen & Suveg, 2012). 부모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녀의 관찰 학습은 Bandura(1969)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동은 특히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미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다 더 많이 모방하므로, 어머니가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조절 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정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국외 연구들에서도 어머니가 평소에 긍정적인 정서를 보일수록 유아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Garner & Power, 1996), 어머니가 적절한 수준의 정서표현을 하거나 자녀가 느끼는 정서를 잘 인식하도록 양육하는 경우, 아동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Eisenberg et al., 1996; Morelen & Suveg, 2012). 또한 어머니가 능동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Kim & Song, 2008), 어머니가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할수록 아동 또한 그와 유사한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Kim & Song, 2008; Lim & Park, 2001).

또 다른 부모관련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Bernstein & O'Neill, 1992; Calkins, 1994), 아동은 사회화 과정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Kopp, 198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 & Lee, 2010; Hong, 2001; Kim & Nahm, 2011; Lim & Park, 2001; Park & Kim, 2005).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자율성을 격려 받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아동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Clark & Ladd, 2000).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높은 반면(Lee & Choi, 2005), 어머니가 거부·강압적 혹은 허용·방임적이거나(Park & Kim, 2005; Shields & Cicchetti, 1998),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낮았다(Cho & Lee, 2010).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 가운데 긍정적 양육행동(Gray & Steinberg, 1999)은 긍정 심리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 하에, 개인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 보편적이며 중요하다는 점(Kwon, 2008)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선행 변인으로서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요인과 개인의 발달사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Belsky, 1984). 어머니가 평상시에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서조절을 잘하는 어머니는 양육행동 또한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Feshbach, 1997; Gottman et al., 1997).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

해 적극적인 정서조절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Lim & Park, 2001) 자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즉 독립성 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Ha & Park, 2012). 이와 유사하게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은 어머니는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자녀양육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여러 대안을 찾아보는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Cheong & Kim, 2006). 이와 달리,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자기 위안이나 감정 완화하기, 문제 해결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졌다(Shipman et al., 2007).

부모의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조절능력과 더불어 개인의 발달사 측면인 어린 시절의 양육경험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Belsky, 1984). 개인의 애정과 친밀감은 주양육자가 보여준 관심과 기억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장기 양육경험은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Fincham, 1994). 몇몇 선행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유아기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며(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 어린 시절 부정적 양육을 받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Belsky & Vondra, 1993).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20여 년 동안 추적한 Chen과 Kaplan(2001)의 종단연구에서도 첫 번째 조사 시점인 13세, 즉 청소년기 초기에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조사 시점인 30대 중후반, 즉 22-26년 후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건설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8-12세에 받은 양육의 질이 20년 후에도 지속되는지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 받은 긍정적 양육의 경험은 이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되었다(Shaffer et al., 2009). 또한, 어린 시절 수용적 양육을 받은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었으며(Jeon & Park, 1999; Lee & Chung, 2007),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했다고 지각할수록 현재 자녀에게도 유사하게 대하였다(Lee, Song, & Doh, 2011).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신이 어린 시절 원 가족에게서 보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모델링됨으로써 세대 간에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Lee, Song, & Doh, 2011; Shaffer, Burt, Obradović, Herbers, & Masten, 2009). 그러나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Chung, Chun, & Kim, 2004; Park, 2002; Simons, Whitbeck, Conger, & Wu,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포함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였던 바와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험한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im과 Song(2008)은 양자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연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아동기에 과잉보호나 거부적으로 양육된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을 보였다. 연구방법론적으로 횡단적 설계에 기초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양육행동을 회고하도록 함

으로써, 아동의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성인기에 속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고식 조사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인식 혹은 정서를 측정한다는 점에서(Seo & Cho, 2008),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은 나아가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있어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아동이라는 3세대 간의 연결성을 예측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외조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Belsky, 1984)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Lim & Park, 2001)을 밝힌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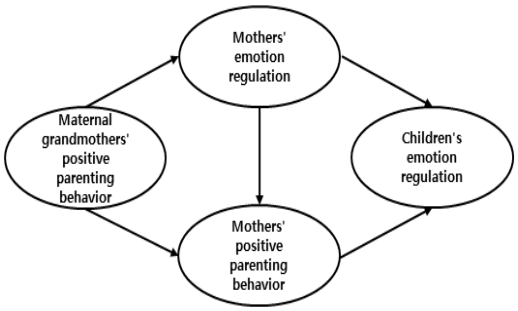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Linking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rough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구시 소재 3곳 초등학교 4, 5학년에 재학 중인 348명의 남녀 아동의 어머니들이다. 학령 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의 정서 관련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가 유아기보다 학령 후기에 더 밀접하다는 점(Eisenberg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 Fabes, 1994)과 더불어 이 시기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 정서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2)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65명(47.4%), 여아가 183명(52.6%)이었으며,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이 188명(54.0%), 5학년이 160명(46.0%)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192명(55.2%), 45~49세가 106명(30.5%)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184명(52.9%), 35~39세가 114명(32.8%)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4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99명(28.4%)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118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13명(32.5%)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34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일반 판매직 종사자로 123명(35.3%)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157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49명(14.1%)이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 수준'이 286명(82.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외조모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외조모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외조모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Lee (2012)의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온정(9문항)과 논리적 설명(10문항)의 2개 하위요인만을 선정하였다(총 19문항).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내용은 서로 동일하나, 외조모용 척도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양육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들로, 어머니용 척도는 평소에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현재 양육행동을 떠올리며 응답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의 경우 '우리 어머니는(나는) 웃는 얼굴로 나를(아이를) 대해 주셨다(준다)', '우리 어머니는(나는) 나(아이)와 함께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다(보낸다)' 등이, 논리적 설명은 '우리 어머니는(나는) 나(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게(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다(준다)', '우리 어머니는(나는) 내게(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준다)' 등이 포함된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각각 온정은 .88과 .85, 논리적 설명은 .91과 .85이었다.

2)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Yoon(1999)의 정서조절 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Im(200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동적 양식(8문항), 지지추구적 양식(8문항), 회피분산적 양식(9문항)의 3개 하위요인(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능동적 양식의 경우,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한다',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지지추구적 양식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만난다',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등을 들 수 있다. 회피분산적 양식의 경우,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기분 나빠진 상황이나 사람을 피해버린다' 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피분산적 양식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능동적 양식이 .82, 지지추구적 양식이 .82, 회피분산적 양식이 .73이었다.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5, 1997)의 정서조절 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Kim(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적응적 정서조절(adaptive emotion regulation)(9문항)과 불안정/부정적 정서(lability/negativity)(15문항)의 2개 하위요인(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적응적 정서조절의 경우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 한다' 등이,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경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적응적 정서조절이 .68,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84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용으로 개발된 Lee(2012)의 양육행동 척도를 본 연구 참가자인 학령 후기 아동의 부모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소재 2곳의 초등학교 4, 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5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조사, 회수하였다. 그 결과, 학령 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응답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문항 없이 Lee(2012)의 척도를 사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시에 위치한 3곳 초등학교 21개 학급 4, 5학년을 선정하여, 각 학교장의 동의

하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각 교사들을 통해 아동 편에 배부된 450부 가운데 442부가 회수되었다(98%의 회수율).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현재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22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32부)를 제외하였다. 이어서 연구변인의 표준화 값(Z)이 ±3SD를 벗어난 이상치(Outlier)에 속한 경우(39부)를 제외하고(Tabachnick & Fidell, 2001), 최종적으로 총 3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x^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근접하고(close fit), .08 이하일 경우 적절하며(reasonable fit), NFI, TLI와 CFI는 .90 이상일 경우 좋다고 해석한다(Hong, 2000). 마지막으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Kim, 2007).

Ⅲ. 결과분석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의 회피분산적 양식 하위요인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적응적 정서조절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변인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2. 측정모형 분석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변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방식은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 = 37.271(df = 21), X^2/df = 1.775, NFI = .959, TLI = .968, CFI = .982, RMSEA = .047로(Table 2), X^2/df < 3(Kline, 1998), NFI > .90, TLI > .90, CFI > .90(Hong, 2000), RMSEA < .08(Browne & Cudeck, 1993)이라는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 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1]은 .304～.885였으며, C.R.(Critical Ratio) 값 또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Table 3, Figure 2). 이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

1) 일반적으로 ± .3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아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Sung, 2007).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motion regulati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N* = 348)

Variables	1	2	3	4	5	6	7	8	9
MGPPB									
1. Warmth	-								
2. Reasoning	.73***	-							
MER									
3. Active regulation style	.35***	.39***	-						
4. Support-seeking regulation style	.19**	.17**	.31***	-					
5. Avoidant/distractive regulation style	-.23***	-.23***	-.26***	-.16**	-				
MPPB									
6. Warmth	.40***	.35***	.47***	.18**	-.15**	-			
7. Reasoning	.34***	.40***	.55***	.25***	-.13*	.53***	-		
CER									
8. Adaptive emotion regulation	.19***	.16**	.45***	.25***	-.09	.39***	.47***	-	
9. Lability/negativity	-.18**	-.17**	-.24***	-.11*	.13*	-.32***	-.27***	-.43***	-
M	2.86	2.73	2.91	2.83	2.38	3.12	3.19	2.98	1.80
SD	.51	.50	.37	.41	.38	.41	.36	.32	.35

Note. MGPPB =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ER=Mothers' emotion regulation, MPPB=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CER=Children's emotion regulation
*p < .05. **p < .01. ***p < .001.

〈Table 2〉 Fit index for the measurement model (*N* = 348)

X^2	*df*	X^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37.271*	21	1.775	.959	.968	.982	.047 (.020～.072)

*p < .05.

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형을 채택하여 후속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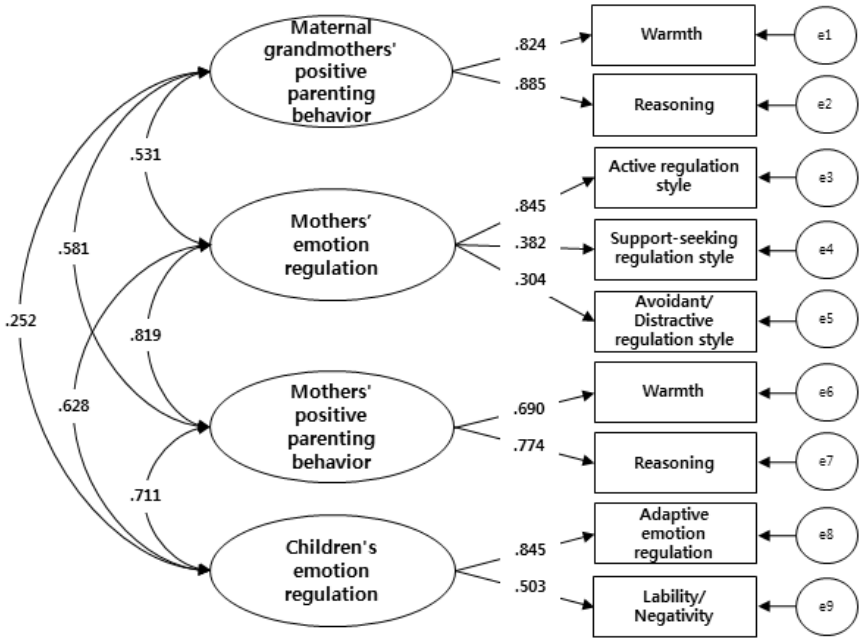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여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가 바람직한 수준임을 확인한 후,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X^2 = 47.358(*df* = 22),

〈Table 3〉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ment model (*N* = 348)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B	β	*S.E.*	C.R.	*p*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Warmth	1.000	.824			
	Reasoning	1.051	.885	.091	11.577	***
Mothers' emotion regulation	Active regulation style	1.000	.845			
	Support-seeking regulation style	.496	.382	.084	5.931	***
	Avoidant/distractive regulation style	.370	.304	.076	4.849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Warmth	1.000	.690			
	Reasoning	.992	.774	.087	11.418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daptive emotion regulation	1.000	.845			
	Lability/negativity	.652	.503	.099	6.581	***

***p < .001.



〈Figure 2〉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ment model

X^2/df = 2.153, NFI= .949, TLI = .953, CFI = .971, RMSEA = .058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Table 4).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연구문제에 맞춰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첫째,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Table 4〉 Fit index for the structural model (*N* = 348)

X^2	*df*	X^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47.358**	22	2.153	.949	.953	.971	.058 (.035～.080)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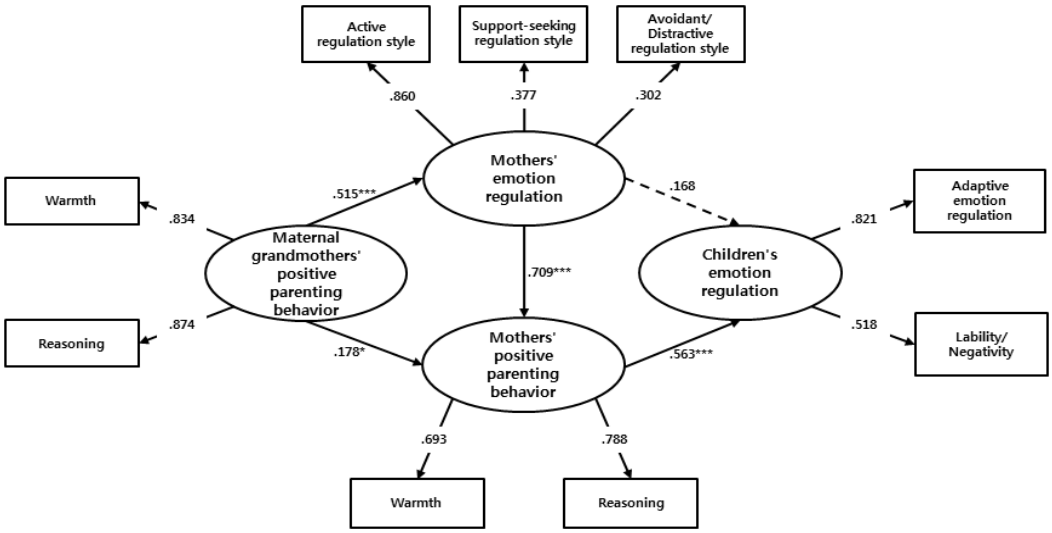
〈Table 5〉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348)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Mothers' emotion regulation	.388	.515	.050	7.817	***
Mothers' emotion regulation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136	.168	.132	1.031	.302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119	.178	.057	2.076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516	.563	.152	3.394	***
Mothers' emotion regulation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627	.709	.117	5.349	***

*p < .05. ***p < .001.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515, p < .001),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168, p > .05). 즉,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했다고 지각한 어머니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나, 이것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β = .178, p < .05),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β = .563,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했다고 지각한 어머니는 스스로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β = .515, p < .001),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β = .709, p < .001),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β = .563,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했다고 지각한 어머니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았고,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되었으며,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검증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이어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6), 어머니의 정서조절



Note 1. Measurement errors are deleted.
Note 2. Solid and perforate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and insignificant paths, respectively.
$^{*}p < .05$. $^{***}p < .001$.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능력(β = .567, p < .01)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β = .563, p < .01)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사한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β = .709, p < .01)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β = .543, p < .05)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β = .515, p < .05)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 .393, p < .01).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2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67% 설명하였으며,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50% 설명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 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외조모의 긍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from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N = 348)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SMC(R^2)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	.393**	.393**	.265
Mothers' emotion regulation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168	.399**	.567**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563***	-	.563**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178*	.365**	.543*	.665
Mothers' emotion regulation →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709***	-	.709**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 Mothers' emotion regulation	.515***	-	.515*	.496

*p < .05. **p < .01. ***p < .001.

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가졌다고 보고하였으나,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경로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물어, 여기서는 두 변인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회고를 통해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Kim & Song, 2008)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결과 간의 관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에 긍정적 양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온정적인 외조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 행동에 대해 존중받으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받은 양육에 대한 지각이 성인기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

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Cho & Lee, 2010; Hong, 2001; Kim & Nahm, 2011; Lim & Park, 2001; Park & Kim, 2005)을 확장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삶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6; Kang, 2006; Kim & Song, 2008; Morelen & Suveg, 2012)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사회학습이론(Bandura, 1969)에 근거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적절한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양자 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선행 변인으로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행동 등 여러 변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초래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발견된 유의한 상관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뒤에서 언급되듯이, 본 연구의 여러 경로를 탐색해 보건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는 정서조절능력도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이 변인들 간의 경로를 밝힌 경우가 드물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외조모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밝힌 Oh(2010)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와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어서,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양육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들(Chen & Kaplan, 2001; Chong, Jang, & Kim, 2005; Lee, Song, & Doh, 2011; Shaffer et al., 2009)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결과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회고식 방법(Kitamura et al., 2009; Lee, Koh, & Shim, 2009; Lee, Song, & Doh, 2011; Oh, 2010)은 물론 종단적 설계(Chen & Kaplan, 2001)를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발달되는 아동의 행동양식은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Serbin & Karp, 2004), 부모의 양육행동은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토대로 결정되기 쉽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으로 형성된 모-자녀 관계를 통해 이후 자신의 자녀 세대와도 긍정적 모-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재확인하게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Cho & Lee, 2010; Clark & Ladd, 2000; Park & Kim, 2005)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Hong, 2001),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같은 긍정적 정서조절능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Lim & Park, 2001)와 유사하며, 평소에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Park, 2011)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외조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긍정적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나타내었고,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였으며,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높았다. 이러한 네 가지 연구변인 간의 경로는 각각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 가지 경로들 가운데 앞서 서술한 경로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머니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Ha & Park, 2012; Lim & Park, 2001)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자기 위안이나 감정 완화하기,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Shipman et al., 2007)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중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정적 정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관리 훈련을 받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여러 대안을 찾아보는 등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Cheong & Kim,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거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애정적이고 논리적 설명

을 하는 등 긍정적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이와 동시에,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시 부모의 정서조절능력의 증진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어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함으로써 자기보고라는 특성상 바람직성을 내포할 수 있고, 동일한 보고자라는 특성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과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나 배우자를 통한 타인 보고식 질문지 방법과 자연관찰법이나 실험실 연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실제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에게 내재화된 지각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회고식 보고방법으로 인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변인을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 제한하였으나,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네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건강한 발달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andura, A. (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ide: Lawrence Erlbaum.

Bernstein, B. A., & O'Neill, C. (1992).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Chen, Z.,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Cheong, S. J., & Kim, Y. S.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motion management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and its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817-838.

Cho, S. H., & Lee, K. N. (2010).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5), 61-72.

Chong, Y. S., Jang, H. J., & Kim, Y. H. (2005). The child-rearing behaviors of two generations of grandmothers and mothers. *Journal of Human Ecology, 9*(2), 49-59.

Chung, M. J., Chun, Y. J., & Kim, J. (2004).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s behavioral problem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2), 133-150.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 (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pp. 57-74). San Francisco: Jossey-Bass.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 (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 109-128.

Eisenberg, N., Shepard, S. A., Fabes, R. A., Murphy, B. C., & Guthrie, I. K. (1998). Shyness and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coping: Contemporaneous, longitudinal, and across-context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3), 767-790.

Feshbach, N. D. (1997). Empathy: The formative years-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In A. Bohart & L. Greenberg (Eds),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pp. 33-5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2). 2011 National research of school violence. *Research Report. 12-001.*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574-587.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Ha, Y. M., & Park, S. Y. (2012).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mother'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on parent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175-195.

Han, E. G. (2005).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85-100.

Hong, A. G. (2001).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ju, Korea.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Im, J. O. (2003).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Jeon, H. J., & Park, S. Y. (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53-169.

Kang, S. H. (2006). Mother's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their children emotion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Kim, E. K., & Song, Y. H. (2008).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mother's emotional regulation style, mother's attitude toward her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eschoolers' emotional 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4*(1), 43-64.

Kim, G. S. (2007). *New Amos 7.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Kim, J. Y., & Nahm, E.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stress-cop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5), 13-28.

Kitamura, T., Shikai, M. U., Hiramura, H., Tanka, N., & Shono, M. (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 and personality: Direct influence or medi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541-556.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cientific investigation in happiness.* Seoul: Hakjisa.

Lee, H. R., & Choi, B. G. (2005).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individual and parents' characteristics and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5), 1-14.

Lee, J. M., Song, S. M., & Doh, H. S. (201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3), 85-97.

Lee, J. S., & Chung, M. J. (2007).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5), 85-94.

Lee, K. N. (2009).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parent related variables and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on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1-12.

Lee. S. H., Koh, I. S., & Shim. J. S. (2009). The study of parent's and grand parents' parenting styl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1-134.

Lim, H. S., & Park, S. Y. (2001).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4.

Lim, Y. J. (2002).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 113-124.

Morelen, D., & Suveg, C. (2012). A real-time analysis of parent-child emotion discussions: The interaction is reciproc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6), 998-1003.

Oh, A. R. (2010). A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s aggression and self-regulation ability: Focused on generation transfer of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ark, H. S. (2011). Rel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owar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ark, S. J., & Kim, S. O. (2005).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aged children's strategies and competence of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35-53.

Park, S. Y. (2002).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35-50.

Park, S. Y., & Kang, J. H. (2005).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1-14.

Park, S. Y., & Lee, S. (1990). Research: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8*(1), 141-156.

Rhee, S. H. (2012).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scale' parents with school-ag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Seo, M. O., & Cho, W. I.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maternal experience and the quality of life of mothers with mentally disabled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0*(3), 319-348.

Serbin, L. A., & Karp, J.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psychosocial risk: Mediators of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33-363.

Shaffer, A., Burt, K. B., Obradović, J., Herbers, J. E., & Masten, A. S. (2009).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in parenting quality: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27-1240.

Shields, A.,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Shipman, K. L., Schneider, R., Fitzerald, M. M., Sims, C., Swisher, L., & Edwards, A. (2007).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in maltreating and non-maltreat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268-285.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59-171.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Yoon, S. B. (199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ypes and antecedents of experienced emotions on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December 30, 2013
Revision Received March 3, 2014
Accepted March 10, 2014